

함께 나가요 햇빛 가득한 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외출을 돕는 '부름의 전화' 대장 김정희씨.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장애인들의 '부름'에 행동으로 답하는 것이 그녀의 임무다.

'부름의 전화' 대표

김정희



중증장애인들의 외출 도우미 18년

"아직도 하늘은 파랗구나. 20년 전과 똑 같아..."
십수 년 전 전신마비 장애 때문에 20년간 팔방에 누워 있었던 한 중증 장애인. 그는 20년 만에 썬 햇빛을 움켜쥐곤 이렇게 말했다.

맛도 있고 냄새도 있고 만지면 두들실 떠오를 것 같은 형상도 있는 별. 그는 별의 시선 사이로 문득 문득 보이는 하늘빛을 확인하며 마냥 눈물을 쏟아냈다. 그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음에, 내가 그것을 다시금 마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눈물을 끊임없이 쏟아냈다.

하르는 구름과 살랑이는 바람마저도 '과거' 속에 묻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을 현재에 살도록 할 수는 없을까. 장애인의 파란 눈물을 목격한 김정희(68·부름의 전화 대장)씨는 '외출이 중증장애인 재활의 시작'이라는 입념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을 시작했다.

"10~20년, 많게는 40년까지 팔방에 갇혀 세상 빛을 보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밖을 나서려는 장애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마다 전화로 자원봉사자를 연결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지요. 그들의 '부름'에 행동으로 답하는 '부름의 전화'랍니다."

부름의 전화를 창설할 1987년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장애인 재가(在家) 복지라는 개념은 전무한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시설을 찾을 수 없는 이들은 집에 틀어박혀 몸과 마음의 병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 지금처럼 엘리베이터가 흔한 것도 아니었고, 휠체어를 탄 채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김 대장은 이러한 현실에 맞서 시설 밖 장애인 삶의 현장으로 뛰어 들었다.

계획은 거창했지만 준비된 것은 마음 하나밖에 없었다. 70년대부터 보육원과 양로원을 돕는 봉사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한 그였지만, 장애인에 대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시각 장애인이 길을 걷다 발을 헛디뎠다거나 개천에 빠져 죽은 것을 목격한 것이 계기라면 계기일까. 그 약한 영혼

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소리없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본 그는,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평생 길을 찾게 됐다.

그렇게 살아오기를 20여 년. 쥐고 있던 지갑은 밑빠진 독처럼 가벼워졌고 그 성성하던 머리는 하루가 다르게 세어졌다. 그러나 그의 아름다운 외출에 동참하는 이들은 날이 늘어갔다. 불교방송의 장애인 포교 프로그램인 '그리운 등불하나'를 7년 동안 진행한 덕도 봤다. 장애인을 팔아 돈을 모금한다는 오해가 싫어서 그 흔한 지로용지 하나 발급하지 않았건만, '부름의 전화'에 동참하는 자원봉사자의 수는 4천 명을 훌쩍 넘겼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지



민통선 안에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한 15km 걷기 극기훈련 현장. 앞쪽 깃발 든 사람이 김정희 대장.

세 넓은 소리를 들읍시다. 병원에 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으면서도 어느 병원에 가는 것인지 궁금해 하면 언짢아하며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예요."

연중무휴로 이뤄지는 파송활동 이외에 장애극복 훈련을 별도로 실시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김 대장은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을 이끌고 매달 농촌을 찾아 장애인을 위한 영농활동을 지원한다. 땅콩을 캐고 고구마 감자를 심는 등의 농사일을 통해 장애인들은 성취를 맛본다. 항상 갈등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자원봉사자들의 삶을 다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장 애인들의 사회 환원 문제도 김 대장에게 남길 수 없는 과제였다. 그는 농한기에 농촌 마을회관을 찾아 장애인들이 안마와 침술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침술 현장에서 자신들에게 '장애인'이 아닌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붙는 것을 보고 대단한 자긍심을 느껴요. 봉사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 귀한 성취가 아닐까요."

결혼도 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내내 50년. 그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리도 열심히 달려왔을까. "산이 거기 있으니까 갈 필요예요." 그렇다면 단체도 후원회원의 후원금에 의지해서 가까스로 꾸리는 데 개인의 생활은 어떻게 감당하는 것일까. "스님들이 먹을거리 입을거리 걱정하는 것 봤나요? 걸망지고 길을 나서면 그 어디에 선가 심신을 추스릴 곳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런 그가 이번 달 말에는 민통선 안에 들어가 장애인들과 함께 15km 걷기 극기훈련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벌써 5회째 진행되는 행사다. 무더운 날 피약밭 아래에서 진행되는 '장애와 비장애의 차이를 넘는 도전'이 될 것이라든가. 극복할 무엇이 있어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이 생(生)이라며 활하게 웃는 그에게 오늘도 전화가 따르듯 걸려온다. "이비인후과를 같이 갈 외출 도우미가 필요하시다면 구요?"

글=강신재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안마 침술 등으로 사회 환원 기회도 제공

"능력 일깨워 주는게 진정한 도움이죠"

보육원 양로원 봉사 등 '나눔의 삶' 외길

금도 '부름의 전화'를 찾는 봉사자와 장애인의 수는 여전하다. 왜일까.

"약을 대신 타다주고, 서류를 대신 발급해 주는 식의 도움은 그들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봉사자들은 그들을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장애의 그늘 때문에 스스로 물어버린 그들의 능력에 새롭게 빛을 주는 것이죠."

보행이 어려운 이들의 다리가 되어 주는 것만이 도움이 아니다. 김 대장은 근육의 움직임이 살아있는 다리를 감지하고 그 약동하는 근육의 핏줄이 된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나도 걸어보았다'는 발심이다.

김 대장은 나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것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놓지 않도록 한다. 험한 한 곳에 고여 있었던 피가 철철 흘러 온 몸을 달하는 것은 단 순히 시간 문제라는 믿음, 그것이 '부름의 전화'가 장애인들에게 전한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

그러나 귀한 선물에 대한 보답이 그리 달지는 않았다. "봉사자들의 삶이 아름답고 거룩하긴 할 것 같습니까? 9년 잘하다가도 1번의 실수가 있으면 금

모래만다라 특별전

달라이라마 칠순기념 및 세계평화기원 모래만다라 특별전

■ 1차 전시 - 법연사 불일미술관 (서울 종로구 시간동 121-1)

주최: 달라이라마 동북아시아사무소, 현대불교신문사

| 날짜 | 프로그램명 |
|----------------------|---|
| 7월 15일 오후 2시 | 1. 달라이라마 동북아 사무소 개소식 기념 및 전시회 오픈 2. 규토 스님 특별예불의식 (국내 최초 시연) 3. 기념 리셉션 |
| 7월 17일 오후 2시 | 1. 현장(전남 보성 대원사 주지) 스님 특별법문 2. 규토 스님 특별예불의식 |
| 7월 19일 오전/오후 (2회) | 김규현 거사 (한티베트문화연구소장) 슬라이드 강연 |
| 7월 21일 오후 2시 | 1. 회향식 (전시기간 중 만들었던 만다라를 모두 강물에 흘려보내는 의식, 축) 2. 회향 리셉션 |
| 상설 합동전시 | 회운 스님 연꽃그림전 |

■ 2차 전시 - 봉은사 (서울 강남 삼성동 73)

주최: 달라이라마 동북아시아사무소, 현대불교신문사, 봉은사

| 날짜 | 프로그램명 |
|---|---|
| 7월 25일 | 전시회 오픈, 규토 특별예불의식 |
| 7월 29일 | 회향식 (만다라 회향의식) 규토 특별예불의식 |
| ■ 행사기간 상설 합동전시 | ■ 특별강연 |
| 회운 스님 연꽃 그림전 일시 7월 15일(금요일) ~ 7월 21일(목요일) | 다정 김규현 거사 티베트 슬라이드 강연 일시 7월 18일(월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2회 |
| 장소 법연사 불일미술관 | 장소 법연사 불일미술관 |
| 회운 스님 약력 1992 동양화가 석당 우희준 선생님의 사사 1999 채석화 한일교류전 2000 채석화 초대전 세종문화회관 국제서화작가 초대전(예술상 수상) | 현 티베트문화연구소장. 성균관대학교와 해인불교 전문강원을 나와 경중미술대학에서 수인목판화(水印木版畫)를 수학. 라씨(拉藏)의 티베트대학에서 만다라와 탕기를 연구. 저서 <티베트의 신비와 명상>, <티베트 역사산책> 등 |



Dalai Lama